

跳躍을 준비하는 順天大學

朴 明 圭
(順天大學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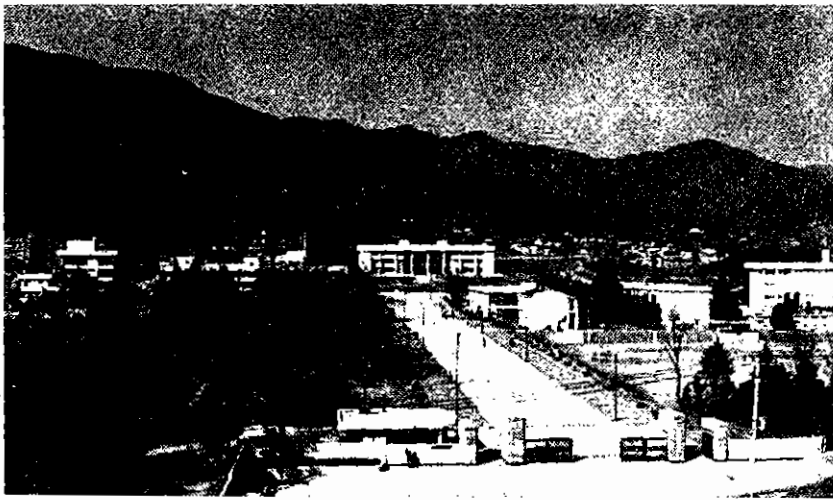
1. 順天大學의 태동

국립 순천대학이 출범의 닳을 올린 지는 오래지 않은 1982년의 일이다. 예로부터 전남 동부 지역의 경제·사회·문화·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진 순천에 4년제 대학이 설립된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른바 순천 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포괄되는 순천·여수·여천·광양시, 여천·광양·구례·보성·곡성·고흥·승주군 등 전남 동부 지역 4市 7郡은 무려 120만 이상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어 전국 17개 지방생활권 중에서는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 생활권의 중심지인 순천이 경제나 교통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그대로 교육의 중심지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경작 순천시의 인구는 15만 정도인데 중등교육 기관이 상당한 수자에 달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인식도 나 욕구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은 편이다.

한편 '70년대 이전에는 주로 농업을 위주로 하던 이 지역 산업 구조가 '70년대 중반 이후로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인근에 여천 공업 단지가 조성되고 광양제철소가 설치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 구조의 변동은 산업과 교육의 협동 체제를 긴급히 요구하

였다. 이처럼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나 이 지역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부응하여 4년제 국립 순천대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타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순천대학의 前史는 유구하다. 1935년 식민지 시대에 순천공립 농업학교로 개교한 이래 해방 직후 농림중학교, 6·25의 와중에서 농림고등학교, 그후 농림고등 전문학교로 바뀌었고, 1979년에는 순천농림 전문대학으로 개편·인가되었다. 이들 학교들이 편제와 명칭이 각각 달랐지만 이 지역 유수의 명문이었던 점은 변함없었다. 다만 그 동안 이 지역의 산업 구조가 농업 위주였던 만큼 농업 학교로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 지역 산업 구조의 변동은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더이상 농업 학교의 틀을 유지하지는 못하게 하였다.

어쨌든 1982년에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 순천대학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이겠지만 대학으로 불리우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규모였다. 이 지역 산업 구조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주로 농학계 학과와 교육계 학과로 구성된 10개 학과, 400여 명의 모집 정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89년 현재 33개 학과, 모집 인원 1,150명의 대규모 대학으로 변화하였다.



◀ 順天大學은 이 지역의 산업 구조를 반영하여 농학과 공학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教育環境 및 施設

순천시는 전남 동부 지역의 교통 요지로서 순천 생활권의 경제·사회·문화·교육의 측면에서는 예로부터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인구나 재정도를 감안한다면 인접 도시인 여수에 비해 훨씬 뒤지지만 교육에 관한 명실공히 전남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임을 자부해 왔다. 이는 주로 순천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 즉 순천은 전남 동부 지역의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남 서부, 전남 서부, 전북 남부를 잇는 가교적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지역 생활권의 명칭이 여수시까지를 포함하여 순천 생활권 혹은 순천권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 공업 단지가 유치됨에 따라 사회 환경적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주변의 조건들이 양호하다고 해서 대학 자체의 제반 시설이나 제도가 뛰어나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지방대학이 갖는 불리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설대학이라는 점이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업 전문학교가 순천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농업전문학교의 부지나 교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

다. 이는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하였거나 실용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대학 규모의 팽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나 시설의 매입 경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7년 동안 확보해 놓은 부지는 12만여 평에 이르고 건물이나 시설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향후 1~2년 동안 현부지에서 몇 개의 시설물만 확보한다면 8천명 내지 1만명 가량의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대규모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또한 1990년부터 순천대학을 포함한 6개 국립 단과대학을 단계적으로 종합대학으로 전환한다는 문교부의 방침이 있는 만큼 길면 5년 이내에 교육·연구용 실험 기자재와 더불어 충분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3. 機構 및 教育 內容

대학의 기구는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한 만큼 다른 국립대학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략 순천대학의 특수한 내용만을 기술하기로 한다. 우선 1987년에 일반대학원이 인가되어 현재 8개 학과에 석사과정을 설치하였다. 이는 앞으로 순천대학이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협동 체제를 구축하고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본다. 1988년 현재 학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제는 '89년 3월경에 정식으로 법제화 될 전망이다. 학부의 수는 5개이고 이에 소속된 학과의 수는 33개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학부 : 농학과, 임학과, 축산학과, 원예학과, 식품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농업경제학과, 자원식물학과, 농화학
- 농생물학과, 녹지조경학과
- 교육학부 :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농업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 인문사회과학부 : 경영학과, 법학과, 회계학과, 중어중문학과
- 공학부 :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 고분자공학과
- 자연과학부 : 생물학과, 전자계산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 한약자원학과

이러한 학과 구성의 특징은 첫째로 이 지역 산업 구조를 반영하여 농학과 공학계에 중점이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다른 국립 단과 대학과는 달리 이 지역의 중등교육을 담당할 교육계 학과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후발 대학인 관계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과 설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세번째 특징은 앞으로 설명할 것이지만 순천대학 발전의 중대한 장애 요소로서 크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덧붙여 부속 기관으로서 농장, 연습림, 실험 목장, 영농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타 대학과 다른 점이다. 이는 학과 구성의 특성에서도 보았지만 순천대학의 전신이 농업 학교였던 관계로 이 방면에서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러한 부속 기관들이 인근 농업 지대의 주민이나 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또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설 연구소로서는 학생생활연구소, 새마을연구소, 남도문화연구소, 농업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중소기업경영연구

소, 공업기술연구소, 어학연구소 등 8개가 있지만 특기할 만한 것으로 남도문화연구소를 들 수 있다. 藝鄉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지역이 그대로 농업 지대와 일치한다는 것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다소 비약하는 것같지만 고래로 농업 지대였던 이 지역의 문화적 자원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이런 문화적 자원을 수집·정리하고 계승·전파하기 위해 이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 활동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 연구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이 지역 문화의 센터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믿는다.

4.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신설 대학이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 시설 등을 비롯한 연구·교육 환경이 기존의 대학에 비해 빈약한 것임에 틀림없고 그외에도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으로 개교한 1982년에 비해 불과 7년 뒤인 현재에 양적으로는 무려 3배 이상, 질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약을 이루었듯이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가정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일층의 분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이 있다는 대학들이 그 전통 때문에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과감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순천대학에서는 1987년에 제2차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 기간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이다. 이 기간은 순천대학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종합대학으로서의 개편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을 통해 그동안 대학이 성장해 오면서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적출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계획은 어디까지나 소망스러운 바를 구상한 것이므로 장래에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 계획이 터무니 없는 공상은 아니어서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의 지표가 될 것이므로 계획된 기간 안에 반드시 실현되지는 않는다 해도

가까운 장래에는 실현되리라 생각된다.

우리의 계획에 의하면 당면의 과제는 종합대학으로의 개편이다. 단과대학 체제가 갖는 비능률성과 불리한 여건 때문에 종합대학을 소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종합대학으로의 개편을 바란다 해서 양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연구의 내실을 다져 나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가 순천대학을 규모면에서 국내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만들려는 단계포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 차라리 우리의 계획은 소박한 편이다. 우선 앞에서 순천대학의 학과 구성의 불균형을 지적했지만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과를 증설하여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이다. 이 과제 이외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약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차례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원의 확충을 들 수 있다. 대학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고급 인력의 배출과 산학 협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원의 확충은 꼭 필요하다. 현재는 8개 학과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불과하지만 향후 3년 이내에 약 20여개 학과에 대학원과정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일반대학원도 중요하지만 특수대학원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순천대학이 설립을 목표로 하는 특수대학원은 주변의 중등학교 교원의 연수를 위한 교육대학원, 인근의 공단과 기업과 연관되는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등이다.

둘째, 도서관의 확충이다. 교수 및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보관하고 그 이용을 지원하는 대학 도서관은 대학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의 핵심적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 대학이 갖는 재정적 불리함은 이를 돌볼 여유를 없게 하였다. 그러나 저상 3층, 1,600석 규모의 대형 중앙 도서관을 이미 건립하였고 남은 과제는 장서를 확보하고 업무를 전산화하는 데 있다.

셋째, 전자계산소의 확대 개편이다. 미래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

하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라는 자원이 에너지나 물질 자원 못지않게 중요성을 지니며 경제·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사회의 중추 신경이라 할 전산 및 정보 통신망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순천대학 전자계산소는 올해부터 기존의 전산망 조직을 크게 확장하고, 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수년 안에 전남 동부 지역의 전산 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넷째, 학과의 증설이나 시설의 확충, 지원 조직이나 보조 기관의 확대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수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는 주로 우수한 선진 교수의 영입에 치중하여 왔고, 이제는 이와 더불어 이들이 연구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연구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을 쓸 것이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학회 활동과 학위 취득을 권장하여 왔고 승진 요건을 강화하고 논문의 심사평가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왔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교수의 국내·외 연수를 적극 지원하여 연구의욕을 북돋아 나갈 것이다.

순천대학은 신설 대학의 어려움과 약점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이를 인정한 위에서 도약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린(T. Veblen)은 '선두 주자의 벌칙(the penalty for taking the lead)'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가는 자는 항상 많은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하지만 뒤에서 따라가는 자는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저 선진 기술이나 제도를 도입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이 옳다면 순천대학은 도약을 준비하는 데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선진 대학을 모방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선진 대학이 타성에 젖어 엄두도 못내는 측면을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아직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후발 대학의 최대의 강점이다. 지금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여러 측면이 앞으로는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하리라 믿는다. *